

한탄바이러스 발견,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시 | 2026.7.9.(목) 13:00~17:40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제1의학관 6층 (6101, 윤희노 강의실)
주최 | 고려대학교 바이러스병연구소
주관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BK 21 교육연구단 / 핵심연구지원센터
후원 | 대한바이러스학회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바이러스병연구소장 박만성입니다.

고려대학교 바이러스병연구소는 한탄바이러스 발견 50주년을 기념하여 『한탄바이러스 발견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반세기 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호왕 교수는 세계 최초로 신증후군출혈열의 병원체인 한탄바이러스를 발견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감염병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세계 의학사와 바이러스학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소는 그 학술적·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연구정신을 공유하고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973년 설립된 바이러스병연구소는 한탄바이러스 및 서울바이러스 발견, WHO 출혈열 연구 협력기관 지정, 한타박스 백신 및 진단기술 개발 등 감염병 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병원체 규명을 넘어 진단과 예방으로 이어진 매우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기여로 평가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단지 과거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고려대학교가 축적해 온 바이러스 연구의 전통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한탄바이러스 발견은 우리 대학의 연구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업적이며, 바이러스병연구소는 그 학문적 유산 위에서 현재도 다양한 RNA 바이러스의 병원성, 전파, 백신, 항바이러스 후보물질 및 역유전학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탄바이러스와 관련한 연구의 역사와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 감염병 대응 연구 방향과 국내외 협력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신 줄 아오나 부디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한탄바이러스 발견 50주년의 의미를 함께 기념해 주시고, 고려대학교 바이러스병연구소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바이러스병연구소장 **박만성**

프로그램

13:00 – 13:30	등록	
13:30 – 13:55	환영사 축사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정성태 국방과학연구소 제3기술원장 남재환 대한바이러스학회장 / 국립보건연구원장
13:55 – 14:05	기념촬영	
14:05 – 15:05	기조강연	
14:05 – 14:35		Richard Yanagihara University of Hawaii
14:35 – 15:05		송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15:05 – 15:20	Coffee Break	
15:20 – 17:40	초청강연	좌장 : 김우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5:20 – 16:20	Session-I	정희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장 이재우 GC 녹십자(주) 개발 본부장 김도근 NIH 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16:20 – 16:40	Coffee Break	
16:40 – 17:40	Session-II	구세훈 국방과학연구소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만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17:40~	폐회 및 만찬	